

조선시대 복식명칭의 동의어관계 분석: 어휘집을 중심으로

김은정* · 강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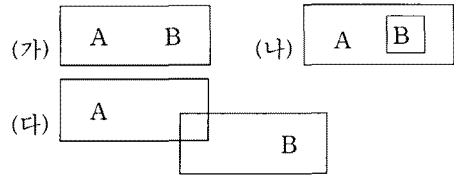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 가톨릭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조선시대 어휘집에는 뜻글자인 한자로 표기된 다양한 용어-표제어-들이 우리말 또는 한자어 및 외래어 발음으로 이해되어 있다. 그 중에서 복식용어만을 발췌하여 어휘집간의 이해의 내용을 비교 분석해 보면, 하나의 표제어를 두 개 이상의 명칭으로 이해한 동의어 명칭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어휘집간의 비교를 통해서 확인되는 복식명칭 동의어들이 실제 같은 복식을 두고 두 개 이상의 명칭으로 표기된 것인지, 또는 하나의 용어가 시대에 따라 포괄하는 의미가 다르거나 그 자체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동의어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조선시대 복식명칭의 사용 현황 및 당시 유사한 명칭들을 포괄하는 대표명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유사한 복식명칭들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발견함으로써 각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어휘집 중 한자학습서인 《千字文》, 《類合》, 《訓蒙字會》, 《新增類合》, 《兒學編》, 《蒙諭編》, 《字類註釋》, 《正蒙類語》, 《通學徑編》과 유해류역학서인 《朝鮮館譯語》, 《譯語類解》·《譯語類解補編》, 《蒙語類解》·《蒙語類解補編》, 《倭語類解》, 《同文類解》, 《方言類釋》 및 어휘분류사전인 《才物譜》, 《廣才物譜》, 《物譜》, 《物名攷》등을 대상으로 하여 복식명칭의 동의어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의어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가)는 두 낱말 A, B가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인데, 복식에서는 동일한 것을 지칭하나 명칭만 다른 경우로, 빈혀(비녀)와 잠, 누역과



사의, 저포와 모시가 이에 속한다. (나)는 포섭관계를 보이는 것인데 이때 A는 상위어, B는 하위어가 된다. 물론 이러한 포섭관계에서는 하나의 상위어 속에 여러 개의 하위어가 존재하는데, 복식에서는 하나의 용어가 형태와 명칭이 다른 몇 가지 것을 포괄하는 경우가 된다. 그 예로 감토(小帽子, 帽子, 頂帽子, 氈帽, 羴頭, 羊毛帽, 毛占帽)와 갓(大帽子, 涼帽子, 帽子, 笠)을 들 수 있다. (다)는 이른바 부분 동의를 보이는 것으로, 복식에서는 용도, 형태에서 부분적으로 같지만 명칭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그 예로는 고의와 바지, 적삼과 한삼 등이 있다.

복식에서 보이는 동의 관계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가)군은 한자어를 한자 사역음과 순수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동등한 관계를 이루는 명칭들로, 이를 통해 당시 한자어와 우리말표기가 혼용되어 사용된 예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나)군의 포섭관계의 동의어에서는 하나의 한글명칭이 다양한 한자어표기를 포괄하는 경우로서, 특히 쓰개류인 감토와 갓은 다양한 한자표기를 포괄하고 있어 조선시대 일반 쓰개를 대표하는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직물명칭에서는 ‘깁’이 羅, 紗, 綾 등의 직물을 포괄함으로써 조선시대 견직물 명칭을 통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외 (다)군의 부분 동의 관계에 있는 바지와 고의, 적삼과 한삼은 용도에 따른 차이로 구분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 각각의 개념을 구체화하는데 도움이 되었다.